



## 나루터에 대한 명상

김궐음/여행작가

**복** 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낯선 곳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다. 떠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버스를 타고 이포나루터로 가면서 졸곤 맴도는 의문이다.

혹자는 떠남을 일러 그리움을 찾아가는 길이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어떤 일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서거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떠남=소비>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유도 없이 훌쩍 길을 떠나고 싶어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봄을 맞아 그런 생각이 부쩍 더하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멀리는 못 가고 내가 사는 주변만 맴돌고 있다. 그동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내 고장의 역사가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의 기쁨이라니. 내가 사는 주변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돌맹이 하나, 부서진 기왓장 하나에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거늘 하물며 눈에 뚜렷이 보이는 문화유산임에랴. 내 부지런한 발품은 종종 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곤 해서 이런 나의 방랑벽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래, 옛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보고 싶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삼십 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포나루.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곳, 이천시의 한 번두리 마을로 내려온 것은 재작년 3월이었다. 그로부터 많은 날들이 흘렀음에도 이포나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 지역 문화유적지를 소개한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포나루를 알게 되었다. 물어 물어 어렵게 나루터에 도착하였다.

참 오랜만에 맛보는 강변 산책이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온갖 들꽃, 세월에 닳고 닳은 조약돌, 물비늘, 그리고 강물 냄새. 동행이 없더라도 혼자 걷는 이 길은 외롭지 않았다. 발에 채이고 옷에 달라붙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친구이니 말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물질 문명이 판을 치는 시대에 '옛것찾기'는 한가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제 고장의 역사를 모르고서 어찌 문화의 시대에 산다고 할 수 있을지 곰곰이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포나루터를 보고 느낀 점은 '옛것'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이게 우리 문화의 현주소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옛 사람들의 체취가 배인 유형물만은 고이 보존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대식 다리가 놓였는데 나루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지 몰라도 옛것을 보존하면서 새것을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에 한번이라도 와본 이들 이라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 나루터에 대해 아쉬워할 것이다. 강물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옛 자취는 간 곳 없으니 이 허허로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 시대 탓으로 돌리기에는 웬지 스산한 마음이 앞선다.

다시 올 날을 기약하며 이포나루터를 떠난다. 강바람 소리가 귓전을 가득 메운다. PPFK